

〈결단하는 인생〉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8(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20:1-11

1. 내가 만약 요나단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두 사람,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는 결국 다윗을 돕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며,
도리어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요나단의 상황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신앙을 위해 했던 결단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소한 결단도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결정은,
'신앙'을 위해 내려야 하는 큰 결단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위해 상황적인 요소들을 포기하는 결단,
금식을 하거나 새벽예배를 나오기로 하는 결단,
십일조 생활을 하기로 하는 결단.. 등등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믿음' 과 '신앙'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 결단은 무엇이든 '위대한 결단' 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